

9월 정세 전망 및 동향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1. 농협중앙회 개혁 위해 정대근 회장 퇴진 요구 거세

○ 지난 5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작년 12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 2천만원에 현대자동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그리고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은 징역 7년, 몰수 3억원을 구형받았다.

○ 그러나 정 회장은 8월 11일 보석금 3천만원에 거주제한 조건의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8월 23일 농협중앙회에 이사회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지고, 경영에 복귀하여 현안을 챙기려는 의지를 보였다.

○ 이 속에서 사법처리를 앞둔 수장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에 대한 350만 농민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농협중앙회 지점과 지역본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이 밝혀져, 농민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에 한농연은 농업계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정대근 회장이 스스로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2.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 활동 방안

○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2차 협상이 이뤄졌으며, 8월 15일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였다. 한국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고 284개의 예외적 취급 품목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수준마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전체 농산물의 19%를 개방 예외로 했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의 요구사항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직후인 9월 14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한-미 FTA 협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한농연은 미국 시애틀에서의 원정 투쟁은 물론 9월 5일 시군 동시다발 제3차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켜, 한-미 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이번 한-미 FTA 3차 협상 저지 활동기간동안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중단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반대 △지방정부 단체장 한미 FTA 반대 선언 촉구 △광역·기초의원 한미 FTA 반대 결의문 채택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양곡정책, 시장 신뢰성 확보에 의문

○ 최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2년 후 세계 쌀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국내외 쌀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속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쌀 시장에 반영하여, 산지 쌀값 및 수급 안정은 물론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정부 양곡정책 개편방안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작년 가을 농협을 통해 사들인 벼 100만섬(정곡 기준) 가운데 40만섬을 8월 16일 공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는 작년 가을 정부 매입벼를 공매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총 70만섬(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에서 쌀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탁판매사업에 참여하는 RPC와 농가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는 사업대상 RPC에 수탁선도금 1천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확기에 부채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가 필요한 농가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속적인 쌀값 하락 추세 속에서 농가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산지 쌀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8월 현재 평균 쌀값(148,772원/80kg)은 작년 쌀값(159,540원/80kg)보다 매우 낮다. 그런데 정부가 조곡공매와 수탁판매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산지 쌀값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이 때문에 한농연은 △목표가격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한 산정방식 개선, △쌀 시장에서 양곡정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연간 공매계획의 사전 발표, △공매 물량과 연계하여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정부 양곡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소득보전 정책의 보완과 고품질 쌀의 유통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쌀 수탁판매제의 도입 및 확대 방침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